“크리스마스 특수 잡아라”…유통업계 행사 ‘풍성’

이마트·홈플러스 연말연시 맞아 완구 최대 80% 할인
롯데백화점은 25일까지 ‘와인앤리커 페스티벌’ 진행

12월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완구·와인·샴페인 할인 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 연말 분위기를 물씬 끌어올린다.

◇이마트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25일까지 인기 캐릭터 완구부터 블록 완구, 플레이모빌 등 각종 완구들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완구 대전’을 진행한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에서 고물가 속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크리스마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인 폭은 늘리고 행사 기간을 일주일 앞당겨 고객 혜택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이마트는 완구 전 품목을 행사카드로 7만원 이상 전액 구매 시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 행사 상품은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각종 사은품 증정 행사도 준비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레고 전품목을 10만원 이상 결제 시 ‘플래너&캘린더 세트’를 증정한다. 또 아바타 속편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이마트가 단독으로 판매하는 ‘레고 아바타 4종’을 ‘레고 스타트팩’과 동시 구매 시 스타트팩을 전액 할인 받을 수 있다.

디지털 게임 크리스마스 기프트행사도 준비했다. ‘닌텐도 스위치’ 타이틀 전 품목 10% 할인 등 다양한 디지털 게임 행사도 선보일 예정이다.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오는 28일까지 ‘크리스마스 토이 페스티벌’을 열고 완구 1천500여종을 최대 80% 할인가에 선보인다.

행사카드로 7만·1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2만원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비롯해 보드게임 80여종 20%, 레고 200여종 최대 40%, 크리스마스 트리와 용품은 최대 70% 각각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홈플러스 단독으로 선보이는 ‘너프 엘리트 2.0 터빈’(전점 2천개 한정)은 70% 할인해 판매하고, ‘플레이도 선물세트’(전점 2천개 한정)는 60% 할인가에, ‘타요 뮤직 플레이세트·마법학교 도로놀이’(전점 각 900개·3천개 한정), ‘블록 슈퍼카’ 2종(전점 각 700개 한정) 등은 50% 할인가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엔데믹 이후 첫 연말연시를 맞아 파티·모임 등 수요가 급증한 것에 초점을 맞춰 최근 전 연령대를 아우르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와인·샴페인 행사로 고객 사로잡기에 나섰다.

광주점을 비롯한 전점에서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하반기 결산 ‘와인앤리커 페스티벌’을 개최, 총 150억원 물량의 와인과 샴페인을 엄선해 선보인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유통업계가 완구·와인 할인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 특수잡기에 나선다. 사진은 오는 25일까지 ‘와인앤리커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특히 연말 선물이나 파티에서 선호도가 높은 샴페인의 물량을 역대 최대인 36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파이퍼하이직 코리아 에디션 샴페인’은 롯데백화점과 보틀벙커에서 단독으로 런칭한다. ‘파이퍼하이직’은 세기의 배우 마릴린 먼로가 좋아했던 샴페인으로 유명하며 갓 구워 낸 빵과 같은 풍미와 신선한 과실 아로마의 밸런스가 일품인 샴페인이다.

이 밖에도 샴페인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각 10개의 ‘페리에주에 벨에포크’, ‘돔페리뇽’ 등 프리미엄과 ‘모엣&샹동’, ‘도츠’ 등 스테디셀링 샴페인을 엄선해 선보인다.

또한 유통업계 최초의 소믈리에인 경민석 소믈리에와 유수의 소믈리에 대회 수상 이력을 가진 최준선, 한희수 소믈리에 등 3명의 롯데백화점의 소믈리에가 직접 참여해, 연말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엄선해 선보이고, 프리미엄급의 와인도 특가로 준비했다.

김승영 롯데백화점 와인&리커 팀장은 “엔데믹 후 첫 연말을 맞아 이 시기와 분위기를 즐기려는 고객층들의 수요가 더욱 다양해졌다”며 “특히 이번 하반기 와인앤리커 페스티벌에는 샴페인을 최대 규모로 준비한 만큼 즐거운 연말연시를 롯데백화점과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광주신세계, 20년째 ‘희망 산타 원정대’ 나눔 ‘눈길’

소외계층 64세대에 1천만원 지원

㈜광주신세계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 산타 원정대’ 따뜻한 겨울나기&사랑 나눔 전달식을 15일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광주신세계 1층 광장에서 김이강 서구청장,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 김현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본부장, 광주신세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주신세계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광주지역 수혜 대상 64세대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탄·난방유·난방비 지원비 1천만원을 전달했다. 연탄과 난방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배달하지 않고 구매 업체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희망 산타 원정대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실시,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광주신세계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추운 겨울을 힘들게 보내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보육시설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따뜻한 희망, 행복을 전달하며 지역 대표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된 광주신세계 희망 산타 원정대 ‘따뜻한 겨울나기&사랑나눔 전달식’이 15일 백화점 1층 광장에서 열렸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는 올 한 해 동안에만 어린이재단을 통해 지역사회에 1억9천만원을 후원했다.

앞서 재단이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1년부터 20여년간의 후원금액은 약 23억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역기업의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광주신세계는 연말을 맞아 우리 지역의 소외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매년 ‘희망 산타 원정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이마트 ‘카톡선물’에 과일선물 세트 선봬

판매채널 다각화 도모…샤인머스캣·용과 등 9종 과일 구성

이마트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접근성을 높인 프리미엄 과일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본격 판매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과일 선물세트는 국산 과일을 기본으로 당도가 보장된 해외 직수입 과일까지 더해 다양하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 바이어가 직접 우수 농가를 선택해 재배, 상품 선별, 유통 과정까지 참여해 신뢰도를 높인 ‘파머스픽’ 브랜드로 준비, ‘파머스픽 그린 사파이어(5.7kg)’와 ‘파머스픽 그린 에메랄드(5.2kg)’ 2종 상품을 마련했다.

이중 ‘파머스픽 그린 사파이어’는 전통적인 국내산 과일 사과, 배, 감, 감귤뿐만 아니라 샤인머스캣, 용과, 머스크멜론, 망고, 아보카도를 포함한 9종의 과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이 점차 다양해지고, 명절 과일 선물 트렌드도 제수용보다는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는 디저트의 의미가 강해지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파머스픽 과일세트’에 구성된 샤인머스캣은 개화 후 110일 동안 충분한 완숙을 거친 상품을 수확 전 샘플링을 통해 17 브릭스 이상만 선별했다.

사과와 배는 비파괴 당도 선별을 통해 각각 13, 11브릭스 이상을 보장한다. 이마트의 깐깐한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우수 농가의 상품만 선별해 품질이 우수하다.

아울러 친환경 종이 완충재로 과일을 개별 포장하고 속 덮개를 사용해 흔들림으로 인한 충격을 한 번 더 방지해 이마트의 프리미엄 과일을 안전하게 선물할 수 있다.

안상훈 이마트 과일 바이어는 “딸기와 같이 신선도에 민감한 과일도 이마트와 협력한 우수 농가에서 산지 직배송으로 신선함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상품들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보일 예정이다”며 “향후 2년 내 선물하기 매출 규모를 3배로 키우고 다양한 판매 채널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4월 파머스픽 스테비아 토마토, 체리, 사과, 오렌지를 시작으로, 여름에는 1-2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소형 까망애플수박 등을 선보이는 등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활용한 판매채널 다각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종합 과일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시원 기자